

#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살펴본 저출산트랩

유 계 숙(경희대 교수)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Lutz(2006)의 ‘저출산트랩’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사립 대학교 13개교에 재학 중인 511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하여 49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응답지 중 부실 기재되었거나 기혼자의 자료를 제외한 412명의 미혼남녀 대학생 자료를 최종적으로 청년층의 응답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변인의 측정은 청년층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이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 및 임금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자영업·창업, 기타 등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기대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임금(기대소득)과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임금(기대소비)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으로, 그리고 청년층의 기대소득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의 희망임금에서 예상 임금을 감한 액수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대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본 자신의 장래 취업가능성은 기타부문 취업이 6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64.51%, 대기업 취업 54.62%, 공공부문 취업 49.63%, 자영업 및 창업 가능성 45.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대학생들이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기대소비수준)은 평균 350.54만원이었으며,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기대소득수준)은 평균 275.36만원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들의 기대소비와 기대소득수준 간 격차는 평균 75.18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자신이 속한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소비수준이 높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연령이 어릴수록, 기대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가족의 자녀수는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청년층이 기대하는 소비수준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클수록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희망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가족의 자녀수가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희망자녀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결과의 유의도 수준은  $p < .10$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층 대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향후 첫 자녀 출산 연령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족의 환경이나 이들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첫 자녀 출산을 지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저출산트랩’가설 중 출산을 저하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출산지연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년들은 기대하는 소비수준도 높고, 이들의 기대소비수준이 장래 예상소득보다 격차가 클수록 향후 적은 자녀를 희망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및 양극화 문제가 향후 저출산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출산의 덫’을 피해가려면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저출산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 등 생애주기상 보다 이른 시기의 현안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